

##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Child Behavioral Problem : A Cross-Cultural Study

한 영 옥\*  
Han, Young Ok  
김 문 혜\*\*  
Kim, Moon Hae

### Abstract

The influence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well-being components of maternal psychological environment on child behavior problems was examined in Korean and American populations. Findings were that the level of mother's self-esteem was lower in Korean than in American mothers; the level of mothers' "autonomy" and "environmental mastery" was lower in Korean than in American mothers; and "somatic complaints" were more frequent in the Korean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was greater in the American group. In the Korean group, autonomy and environmental mastery were negative components causing bo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Mothers' depression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affecting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in both Korean and American groups.

**Key words** : 우울감(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내재화행동문제(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외현화행동문제(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 접수 2002년 10월 31일, 채택 2002년 11월 18일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의과대학 정신건강센터 객원교수, E-mail : hyo8116@hanmail.net

\*\* 강남아동상담센터 소장

## I. 서론

아동의 발달과 적응면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Miller, Crow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Ghodsian, Zajicek, & Wolkind, 1984; Fergusson, Hons, Horwood, Gretton & Shannon, 1985; Richters & Pellerini, 1989; Downey & Coyne, 1990). 그 결과 우울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행동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울증은 성인기에 빈발하는 정신장애이고 (Kaplan & Sadoch, 1991), 특히 출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발병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Weissman, 1987) 아동들이 어머니의 우울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 할 수 있다.

부모의 우울과 아동의 적응문제는 우울한 사람과 그들의 사회적 맥락간의 상호의존성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의 핵심주제가 되어왔다.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정상적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2-5배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Weiss & Catron, 1994),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이 정신분열증 부모의 자녀보다도 우울증상을 포함한 기타 정신병리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높다는(Beardslee, 1983) 연구 결과들이 부모의 우울을 아동의 부적응과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부모환경 변인임을 제시함에 따라 부모의 우울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상호 관련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노력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인 우울 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결혼적응, 부부갈등, 부모-자녀의 애착형성과 아동의 적응행동간의 관

련성을 다룬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강차연, 1999; 이순형 & 권형옥, 1998; Cohn, Cowan, Cowan, & Pearson, 1992; Cowan, Cowan, & Pearson, 1996; Crowell & Feldman, 1988). 그러나 이런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역동이나 가족체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행동문제와 가장 크게 관련된 요인임에도 어머니의 우울을 제외한 그 밖의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으로 밝혀진 우울과 함께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 모두를 포함시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다 총체적으로 밝히고 동시에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세 개의 어머니 심리적 환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관련성이 높고(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주요한 특성인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져오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양상을 모자관계에 적용시켜 볼 때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동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하게 하는 왜곡된 모자 상호관계는 아동 행동문제를 일으킬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심리적 안녕감은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Jung의 개

성화과정, Allport의 성숙과 같은 관점들과 함께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의 한 측면으로 정의되어 왔다(Ryff, 1989). Ryff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숙달감, 삶의 목적, 개인성장들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심리적 안녕감을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으로 볼 때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도전받는 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지는 부모들은 효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횡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시도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행동

문제의 예방과 처치과정에서 개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부모환경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횡문화적 고찰에 따른 문화간 차이의 발견은 일반적으로 아동문제행동의 개입과정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모형들을 적용할 때 문화적 차이의 고려라는 중요한 측면을 재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아동행동문제에서 두 국가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아동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국가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아동 141명과 그들의 어머니 141명으로 한국 표본이 71쌍, 미국 표본이 70쌍이었다. 한국 표본은 서울시 소재의 5개의 초등학교에서 표집하였고, 미국 표본의 경우에는 Wisconsin주 Madison시 소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 6개 사설기관에서 표집하였다. 두 집단의 아동들 모두 지적 능력의 이상과 기질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집단의 어머니들도 지적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이었다.

검사는 2001년 3월 11일부터 5월 17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지는 학교나 사설기관의 교사를 통해 부모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50분 정도이다. 검사지 수거율은 한국이 57% 미국이 33%였다. 부모들의 동의를 거친후 배포했다면 수거율을 높일 수 있겠으나 동의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편파경향성이 있을것으로 보여 부모동의 없이 배포하여 이처럼 검사지의 수거율이 낮았다.

대상아동들의 연령, 성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순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

의 변인에서는 연령과 결혼기간, 교육수준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결혼상태와 직업의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우울증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아동행동문제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로 구성된다.

### 1) 우울증 척도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고, 한국집단에서는 김연(198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Beck과 그의 동료들(1976)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eck(1967)은 9점 이하를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0~15점까지를 경우우울증, 16~23점은 우울증, 24~63점은 중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 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5와 .80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집단에서는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1과 .77이었다.

### 3)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과정은 위스컨신 주립대학 교육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2명의 대학원생에게 번역하게 한 후 그들의 번역문과 본 연구자의 번역문을 비교 검토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서로 논의 후 수정 번역하였다. 이 척도는 84문항으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되는 3개의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그 3개의 하위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숙달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2 이었고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8와 .94이었다.

### 4) 아동행동평가 척도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사용하였으며, 한국 집단은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 K-CBCL)를 사용하였다. 이는 3점 리커트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계수 .62에서 .82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재 변인들의 국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는 t-test와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변인들과 아동행동문제와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아동행동문제에서의 국가간 비교

####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에서의 국가간 비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들의 두 국가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미국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한국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총 점수와 하위척도 대인관계에서는 국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 하위척도 자율성과 환경 숙달감에서 미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

<표 1> 한국과 미국 어머니 집단의 심리적 환경변인들 ( ) = SD

	한국 (n=71)	미국 (n=70)	t
우울감	7.86( 6.34)	5.97( 6.40)	1.75
자아존중감	29.91( 4.38)	34.27( 4.11)	-6.09***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	174.59(25.26)	182.97(31.33)	-1.74
하위척도			
- 자율성	53.91( 9.16)	60.15(13.53)	-3.21**
- 환경숙달감	57.22(10.25)	61.04(10.89)	-2.12*
- 대인관계	64.90(10.56)	61.07(14.41)	1.80

\*p<.05, \*\*p<.01, \*\*\*p<.001

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2) 아동행동문제의 두 국가간 비교

아동행동문제에서의 국가간 비교는 <표 2>와 같다. 13개의 문제 행동 유형 중 '신체증상'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신체증상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표 2> 한국과 미국 집단의 아동행동문제 ( ) =SD

아동행동문제	한국 (n=71)	미국 (n=70)	t
위축	1.32(1.81)	1.52(2.06)	-.62
신체증상	1.32(2.16)	.47(0.95)	3.01**
우울/불	3.61(3.40)	2.91(3.49)	1.21
사회적 미성숙	2.08(1.98)	1.58(1.82)	1.55
사고의 문제	.46( .93)	.48( .94)	-.13
주의집중문제	3.04(2.76)	2.87(2.66)	.37
비행	1.09(1.30)	1.11(1.76)	-.06
공격성	5.11(3.86)	6.45(6.13)	-1.55
성문제	.38( .83)	.17( .41)	1.87
정서 불안정	3.15(2.86)	2.58(2.55)	1.24
내재화행동문제	6.16(5.95)	4.68(4.99)	1.60
외현화행동문제	6.19(4.71)	7.57(7.49)	-1.30
총 행동문제	21.19(14.36)	21.44(17.02)	-.93

\*p<.05, \*\*p<.01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성 문제 정서적 불안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총 행동문제에서도 국가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위축', '신체증상'과 '우울/불안' 척도를 합산한 것이고 외재화 행동문제는 '비행'과 '공격성' 척도를 합산한 것이며 총행동문제는 10개의 문제행동영역을 합산한 것으로 문제행동영역은 총 13개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집단은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집단에서는 아동행동문제 13개 영역 중 '신체증상'에서만 유의한 성차를 나타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증상' 문제를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미국 집단의 아동행동문제에서의 성차 ( )=SD

아동행동문제	남아 (n=38)	여아 (n=32)	t
위축	1.31(2.04)	1.78(2.10)	-.93
신체증상	.71(1.26)	.18(.39)	2.34*
우울/불안	2.84(2.90)	3.00(4.13)	-1.87
사회적 미성숙	1.39(1.70)	1.81(1.97)	-.95
사고의 문제	.60(1.10)	.34(.70)	1.15
주의집중문제	3.23(2.98)	2.43(2.21)	1.25
비행	1.18(1.55)	1.03(2.00)	.35
공격성	6.44(6.82)	6.46(5.30)	-.01
성문제	.13(.34)	.21(.49)	-.87
정서 불안정	2.39(2.28)	2.81(2.86)	-.67
내재화행동문제	4.60(4.54)	4.78(5.55)	-.14
외현화행동문제	7.63(8.05)	7.50(6.89)	-.07
총 행동문제	21.78(16.55)	21.03(17.82)	.18

\*p<.05, \*\*p<.01

이렇게 '신체증상' 행동문제영역에서만 두 국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미국집단은 '신체증상' 행동문제영역에서만 유의한 성차를 보이고 있어 한국남아/한국여아/미국남아/미국여아 4집단으로 나누어 아동행동문제 13개 영역에 대한 4집단간 평균의 차이(Group mean Test)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13개의 행동문제 영역 중 역시 '신체증상'에서만 4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고(F=4.09, p<.01), Post-Hoc Test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여아와 미국여아에서 차이를 보였다(t=1.36 p<.05). 즉 한국여아가 미국여아 보다 신체증상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들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4>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감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비행,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전체점수)도 아동행동문제 전영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나누어 볼 때, 환경속달감 및 대인관계는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적 증상, 사고의 문제, 내재화행

동문제, 총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자율성이 아동행동문제 몇몇 영역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점은 주목할만하다.

〈표 4〉 한국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아동행동 문제간의 관계

	우울감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환경속달감	대인관계
위축	.12	-.12	-.03	.17	.02	-.19
신체증상	.22	.22	.14	.27*	.06	-.04
우울/불안	.42***	-.20	-.02	.15	-.08	-.18
사회적 미성숙	.12	-.17	.00	.06	-.01	-.03
사고의 문제	.03	-.17	.15	.26*	-.05	.03
주의집중문제	.17	-.15	.01	.05	-.06	.03
비행	.24*	.07	.08	.13	.01	.08
공격성	.22	.10	.14	.16	.10	.05
성문제	.18	.13	.08	.13	.04	.07
정서불안정	.32**	-.04	.10	.14	.03	-.16
내재화행동문제	.35**	-.23	.03	.24*	-.01	-.17
외현화행동문제	.25*	.11	.14	.17	.08	.14
총행동문제	.33**	-.13	.07	.23*	-.03	-.05

\*p<.05, \*\*p<.01, \*\*\*p<.001

〈표 5〉 미국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아동행동 문제간의 관계

	우울감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환경속달감	대인관계
위축	.39**	-.24*	-.25*	-.12	-.22	-.22
신체증상	.18	-.13	-.04	-.09	-.21	-.06
우울/불안	.52***	-.47***	-.39**	-.28*	-.29*	-.32**
사회적 미성숙	.39**	-.16	-.30*	-.13	-.26*	-.31**
사고의 문제	.21	-.19	-.17	.02	-.17	-.22
주의집중문제	.41***	-.30**	-.33**	-.30*	-.32	-.17
비행	.37**	-.27*	-.25*	-.21	-.11	-.24**
공격성	.52***	-.39**	-.39**	-.24*	-.33**	-.37*
성문제	-.13	.09	.13	.08	.18	.01
정서불안정	.42***	-.40**	-.22	-.12	-.14	-.20
내재화행동문제	.53***	-.43***	-.35**	-.22	-.31**	-.29*
외현화행동문제	.51***	-.38**	-.38**	-.25*	-.30*	-.36**
총행동문제	.60***	-.45***	-.43***	-.27*	-.37**	-.38**

\*p<.05, \*\*p<.01, \*\*\*p<.001

미국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감은 신체적 호소, 사고의 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행동문제, 총행동문제가 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행동문제가 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인 자율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결과 우울/불안, 주의집중의 문제, 공격성,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환경속달감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에서는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행동문제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와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비행, 공격성,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행동문제가 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양 국가 모두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은 아동행동문제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또한 미국집단에서 어머니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결과, 더 많은 영역의 아동행동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

국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아동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변인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부터 <표 9>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6>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한국집단

변 인	$\beta$	$R^2$	$\Delta R^2$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017	.017	.395
모의 교육수준	-.101			
모의 직업여부	-.043			
아동의 성	-.072			
2. 어머니의 우울감	.420**	.138	.121	2.635*
3. 자아존중감	-.232	.150	.012	2.302
4. 심리적 안녕감	.325*	.222	.072	3.043*

<표 7>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한국집단

변 인	$\beta$	$R^2$	$\Delta R^2$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055	.055	1.307
모의 교육수준	-.081			
모의 직업여부	-.183			
아동의 성	-.047			
2. 어머니의 우울감	.433**	.110	.055	2.336*
3. 자아존중감	.147	.159	.059	2.452*
4. 심리적 안녕감	.299*	.219	.060	2.993*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아동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된 변인을 통제 한 후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감을,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아동의 내재화행동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미국집단

변 인	$\beta$	$R^2$	$\Delta R^2$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194	.194	3.847**
모의 교육수준	-.136			
모의 결혼여부	-.174			
모의 직업여부	-.120			
아동의 성	.018			
2. 어머니의 우울감	.363**	.316	.122	5.834***
3. 자아존중감	-.069	.319	.003	4.843***

<표 9>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미국집단

변 인	$\beta$	$R^2$	$\Delta R^2$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164	.164	3.136*
모의 교육수준	-.258*			
모의 결혼여부	.063			
모의 직업여부	-.209			
아동의 성	.009			
2. 어머니의 우울감	.490***	.354	.190	6.906***
3. 자아존중감	-.018	.354	.000	5.668***

먼저 한국 아동의 내재화행동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우울감이 아동의 내재화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66)=2.635, p<.05$ . 그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7.2%를 설명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었다.  $F(6,64)=3.043, p<.05$ . 또한 외현화행동문제의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있었다. 설명변량은 우울감( $\beta=.433, p<.01$ )이 총변량의 5.5%, 심리적 안녕감( $\beta=.299, p<.05$ )이 6%이었다.

다음은 미국집단에 대한 어머니 변인과 내재화 및 외현화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내재화 행동문제의 경우,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어머니의 우울감, 자아존중감변인이 차례로 회귀공식에 들어갔을 때 아동의 내재화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중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19.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4,64)=$

3.847,  $p<.001$ . 또한 어머니의 우울감의 설명변량은 총 변량의 12.2%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단일 변인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였다,  $F(5,63)=5.834, p<.001$ . 한편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16.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4,64)=3.847, p<.001$ , 이중 모의 교육수준,  $\beta=-.258, p<.05$ .이 유의한 설명을 하였다. 어머니의 우울감( $\beta=.490, p<.001$ )은 총 변량의 19%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F(5,63)=6.906, p<.001$ .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변인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의한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 아동행동문제에서의 국가간 비교

첫째, 어머니의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점수는 국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척도인 자율성과 환경숙달감에서는 미국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한국 어머니들이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신감이나 주장성, 독립성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 더 부정적임을 시사하는데 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능력이 인정받는 입장에 있는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미국과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에서의 차이는 없었는데 반해,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은 미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유의있게 높았으며( $\chi^2=14.68, p<.01$ ),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 보다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있게 높았던 점( $F_{1,139}=3.12, p<.10$ )은 위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아동행동문제에서는 13개 문제행동영역 중 9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체증상'의 문제행동만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호소는 의존욕구가 신체적 호소로 전치된 것이며(Carson, 1972), 이것이 그들의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Trimboli & Kilgore, 1983)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나 불안을 건설적으로 표출할만한 통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세째, 아동행동문제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한국집단에서는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고, 미국 집단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증상'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및 외국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증상 척도 중 복통의 항목에서만 여아가 높았고 나머지 신체증상 항목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Achenbach, Frank, Verhulst, Grand & Althuaus, 1985).

한편 네 집단 즉 한국남아/한국여아/미국남아/미국여아의 아동행동문제 13개 영역에 대한 평균의 차이검증 결과 신체증상에서 한국여아와 미국 여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여아가 미국여아에 비해 수동·의존 경향성이 더 높고, 반대로 미국 여아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더 강함이 시사되는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라는 보편적 인식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또한 한국여아의 의존욕구가 강한 성향은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주장성, 독립성이 더 부족하였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장성, 독립성, 주변환경을 잘 관리한다는 지각이 부족한 어머니의 여아 자녀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한 대처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동·의존적인,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 2.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변인과 아동행동문제간의 상관

첫째, 한국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비행, 내재화행동문제, 외현화행동문제, 총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고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행동문제 전 영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집단은 어머니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 모두 아동행동문제와의 상관 각각에서 13개 영역 중 9개 영역 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비해 더 많은 영역의 아동행동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울감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가정 설명력이 큰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Ghodsian 등(1984), Fergusson 등(1985), Richers 등(1989), Downey(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한국집단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의 하나인 자율성은 신체증상과 내재화 행동문제를 비롯한 몇몇 행동문제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아주 특징적이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이 아동행동문제 몇몇 영역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을 재는 자율성 척도의 항목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할 때라도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원칙들을 혼자 고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것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이같은 어머

니의 특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다소 주장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아동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자율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주로 신체증상이나 내재화 행동문제(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를 더 많이 보였는데, 강한 어머니의 성향을 압박감으로 느끼는 아동은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주로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두 국가간 차이

첫째, 한국과 미국 집단 모두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보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강력하게 설명해주었다. 즉 어머니의 우울감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변인이 입증되었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Miller et al., 1993; Ghodsian et al., 1984; Fergusson, 1885; Richters et al., 1989; Downey, 1990; 김현정, 2002; 남소현 2000).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집단에서만 의의가 있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한 두 국가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집단에서는 미국집단과 달리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해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집단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자율성' '환경속달감' 등의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측정되어, 주장성, 독립성, 지배성과 같은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주장성, 지배성의 성향은 자녀

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행동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론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국가 모두에서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변인 중 우울감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난 바, 아동행동문제와 관련하여 어머니 심리적 환경을 다룰 때 어머니의 우울감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아동의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조력할

둘째, 한국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미국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바, 개입과 처지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자율성, '환경속달감'의 심리적 안녕감 소척도에 포함된 어머니의 주장성, 독립성, 유능감과 같은 성향은 오히려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울감과 같은 정신병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자율성, 유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아동행동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 아동행동문제에서는 한국아동(특히 한국여아)이 '신체적 증상'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여아의 수동, 의존경향성을 줄이는데 노력해야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건설적으로 표출할만한 다양한 통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의 연구방

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서 표집된 사례가 각각 71, 70쌍으로 안정된 분석에 충분한 표집의 크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두 국가의 표집에서 어머니의 직업, 결혼상태 등 중요할 수 있는 변인들이 통제되지 못하여 횡문화적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며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도구의 번역과정의 문제로 본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증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이미 한국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이나 심리

적 안녕감 척도는 연구자가 번역한 것으로 역번역 과정과 같이 두 문화권에서 사용된 척도들에 동일한 조건을 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셋째, 평가의 문제이다. 아동행동평가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를 어머니 자신이 평가하였는데, 아동의 문제를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보다 타당화 하기 위해서 평가자의 지각이 좀 더 객관적인 교사평정과 같은 평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차연(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2002).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적응행동.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정성연구소.
- 홍강의, 송혜양, 김중술, 홍경자, 박성수(1988). 아동행동목록(CBCL)에 의한 국민학생의 행동문제 조사. *신경정신의학*, 27(2), 346-359.
- Achenbach, T. M., Verhulst, F. C., Baron G. D., & Akkerhuis, G. W.(1987). Epidemiological Comparisons of American and Dutch children : I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for Age 4 to 16.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6, 317-325.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ardslee, W., Bemporad, J., Keller, M. B., & Klerman, G. L.(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a major affective disorder :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32.
-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7-431.
- Crowell, J. A.,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Fergusson, D. M., Hons, L. J., Horwood, Gretton, M. E., & Shannon, F. T.(1985). Family life events, maternal depression, and maternal and teacher descriptions of child behavior. *Pediatrics, 75*(1), 30-35.
- Ghodsian, M., Zajicek, E., & Wolkind, S.(1984).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1), 91-109.
-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0-84.
- Miller, N. B., Crown, P. A., Crowa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3-18.
- Richters, J., & Pellegrini, D.(1989). Depressed mothers' judgments about their children : An examination of the depression-distortion hypothesis. *Child Development, 60*, 1068-107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Trimboli, R., & Kilgore, R.(1983). A psychodynamic approach to MMPI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14-626.
- Weissman, M. M., Gammon, G. D., John, K., Merikangas, K., Warner, V., Prusoff, B. A., & Scholomskas, D.(1987).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Increased psychopathology and early onset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47-853.
- Verhulst, F. C., Akkerhuis, G. W., & Althaus, M.(1985a). Mental in Dutch Children : A cross-cultural comparison. *Acta Psychiat. Scand.*, 72 : Supplement No. 324.